

[제2018-42호]

| | | | | | |
|---|------------------------------|----------------|-------------|---|--|
|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 | 보 도 자 료 | |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총 4쪽 | |
| 배포일시 | 2018. 6.12(화) | 담당부서 | LA한국문화원 공연 | | |
| 연락처 | 323-936-3015/tammy@kccla.org | 담당자 | Tammy Chung | | |

ARI Project <가야금과 시간> 개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야금 음악이 변형될 것을
한 무대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설명과 진행



-
- ▶ 공연명 :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가야금과 시간”
(Gayageum & Time)
 - ▶ 일 시 : 2018.6.21(목) 19:3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 최 : LA한국문화원, 지영희민속음악연구회USA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불임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일곱번째 무대로 지영희 민속음악연구회USA (회장 최스칼렛)을 선정하여 <가야금과 시간> (Gayageum & Time) 공연을 6.21(목)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가야금과 시간>이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에는 한국에서 활동중인 지순자 명인 (지영희민속음악연구회 회장/가야금연주자), 최스칼렛 (가야금 연주자)과 LA한국전통타악그룹 "놀이" 임주영 디렉터, 이경아 등 한국과 미주지역 공연가들이 함께 우리 고유의 흥과 멋이 담긴 전통문화를 가야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영어와 한국어로 설명과 함께 진행될 이번 공연은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최스칼렛씨가 직접 작곡한 가락을 25현 가야금에 얹어 병창으로 연주하는 '시조 병창', 마음의 평화를 불러오는 음악으로 양반들이 오랫동안 즐기던 음악 '가야금과 단소 풍류', 성금연의 다섯번째 딸인 지순자와 손녀 최스칼렛이 함께 즉흥 가락으로 연주하는 '가야금 산조', 경기민요인 '가야금 병창-창부타령과 자진창부타령', 근대적 산조인 '가야금과 타악, 안기육류 가야금산조', 그리고 한국인 누구나 익숙하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리랑'과 전통 아리랑 선율과 미묘하게 비슷한 음색과 통일의 희망적인 가사로 작곡된 '홀로 아리랑'을 12현과 25현 가야금 연주로 구성하였다.

지영희, 성금연 선생의 다섯번째 딸 지순자 명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으며, 1960년 라디오 서울중앙방송국 경연대회 국악부문 차상, 1968년 신인예술상 문화공보부주최 특상과 1974년 무형문화재 전수생 평가발표회 기악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수 공연 외에 8개 음반과 8개 악보를 출간한 바 있다. 전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국악을 알리는 부친 평생의 꿈을 바탕으로 2000년에 지영희민속음악연구회를 설립하였다.

최스칼렛은 미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를 마쳤다. 한국에서 전공인 가야금 외에 장고, 가곡, 단소와 사물놀이 등을 학습하였으며, 가야금과 장고로 많은 녹음에 참여하였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지영희 민속음악연구회USA 회장 최스칼렛씨는 "한국 전통음악 중에서 가야금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시대적으로는 음악적인 변화를 가장 먼저 적용한 악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그 변화를 각기 다른 곡으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한국 국악을 향한 열정과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미국과 한국 등에서 활동하는 국악인들이 함께 마련한 공연무대라서 더욱 뜻 깊고, 많은 분들이 이번 공연을 찾아주셔서 우리소리의 멋과 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공연작품 공모전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현대무용,

오페라, 클래식, 전통무용, 국악, 재즈, 탈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야금과 시간 (프로그램)

* 공연해설 : 최스칼렛

1. 시조병창, 25현에 얽은 청산리 / 작편곡 최스칼렛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강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리,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2012년에 시조병창으로 초연되었다. 보통 대금과 장고 반주로 연주하지만, 오늘은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본인이 직접 작곡한 가락을 25현 가야금에 얹어 병창으로 연주한다.

2. 가야금 과 단소 중주, 풍류 / 지수임당, 최스칼렛

풍류는 마음의 평화를 불러오는 음악으로 양반들이 오래전부터 즐기던 음악이다. 오늘 연주 될 풍류는, 지영희 풍류가락 중 '세령산' '염불도드리' 와 '타령'을 짧게 단소와 함께 연주된다.

3. 가야금산조 중주: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 지수임당, 최스칼렛

산조는 서양음악의 소나타와 비교할 수 있는 독주곡이며 박자와 악장의 역할을 하는 장단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산조는 느린 장단에서부터 점차 빨라진 장단으로 진행된다. 오늘 연주될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55분에서 축소되었으며 성금연의 다섯번째 딸인 지순자와 손녀 최스칼렛이 유니슨 과 즉흥 가락으로 이 중주가 연주된다.

4. 가야금병창, 창부타령과 자진창부타령 / 지수임당

창부타령은 경기민요로 경기 서울지방에서 많이 불리던 민요다. 창부타령의 본래 굿거리 장단으로 구성 되어있지만, 조금더 빠른 자진모리 장단으로 지수임당에 의해 편곡되었다.

5. 가야금 창작곡, 침향무 / 최스칼렛, 지수임당

침향은 인도 향기의 이름으로 이 곡의 악제는 침향이 서린 속에서 추는 춤이라는 뜻을 지닌다. 1974년에 작곡된 이 곡의 음계는 불교음악인 범패에 기초를 두기 있으며 가야금의 조현이 새로우며 연주기교도 서역의 하프 즉 공후를 연상시켜주는 분산화음을 위한 새로운 것이 많다. 이 곡에서 장구는 독자적인 위치에서 단순한 반주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손가락으로 두드린다는가 채로 나무통을 때리는 등 새로운 기교로 특이한 효과를 낼 때도 많다. 세 악장 중에서 2, 3 악장만 연주된다.

6. 가야금 과 타악,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 지수임당, 임주영, 이경아, 최스칼렛

안기옥 가야금산조는 맺고 풀고를 반복하면서 음과 장단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작곡되어 있어 서양의 타악들과도 잘 맞는 근대적인 산조다. 안기옥과 성금연은 사제지간이며, 흐름은 비슷하나 박자 나눔이 조금더 세분화 되어 있다.성금연과 사제지간이어서 음악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다르기도 하다. 안기옥 산조와 다양한 춤을 얹어 '지수임당의 조조다무'로 국악의 이해가 깊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를 여러차례 선보였다. 무대에서는 8개 장단 중 '진양조' 일부분과 가장 신나는 '엇모리' '안땅' '취모리' 장단을 장고·북과 함께 연주된다.

7. 12현과 25현 가야금 중주, 아리랑 과 홀로 아리랑 / 지수임당, 최스칼렛

한국인 누구나 익숙하며 UNESCO에 등재된 '아리랑' 과 1990년 한돌 작곡으로 전통 아리랑 선율과 미묘하게 비슷한 음색과 통일의 희망적인 가사로 작곡된 '홀로 아리랑'을 12현 과 25현 가야금으로 연주된다.

*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끝/



Performing Artists / 출연자



지순자
Ji Soon Ja



최스칼렛
Scarlett Choi



임주영
Ju Young Lim



이경아
Kyoung Ah Lee

수임당 지순자

- 지영희민속음악연주회 회장
- 수임당가락타기 대표
-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중앙대학교, 서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출강 역임
- 1960년 라디오 서울중앙방송국 경연대회 국악부문 차상
- 1968년 신인예술상 문화공보부주최 특상
- 1974년 무형문화재 전수생 평가발표회 기악부문 대상